

# 구약논단

제 15권 3호(통권 33집) 2009년 9월 30일

강 승일(장신대 강사) 구약성경 고대 시가에 나타나는 전접어 뱀 연구 .....	151
본 연구는 히브리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접어 뱀의 존재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오래된 본문일수록 전접어 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구범위는 고대 시가들로 한정한다. 연구 결과 여러 구절들에서 전접어 뱀의 존재가 밝혀졌다. 전접어 뱀은 다른 샘어에서처럼 한 단어를 강조하거나 화제의 전환을 알리는 기능을 하였음이 드러났다.	
Kang, Seung-Il Enclitic Mem in Archaic Biblical Poetry .....	151

---

# 구약성경 고대 시가에 나타나는 전접어 멤(前接語, enclitic mem) 연구

---

강 승일 | 장신대 강사

## 1. 문제의 제기

설형문자 토판들이 해독되고 아카드어, 우가리트어 등의 문법 체계가 밝혀지게 되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히브리어에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론적 요소들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전접어 멤(前接語, enclitic mem)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학자들은 히브리어의 전접어 멤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들인 고대 시가들을 살펴보고 전접어 멤의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연구사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전접어 멤의 존재 가능성이 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중세 시대의 유대인 히브리어 문법학자인 요나 이븐 자나크(Yonah ibn Janach, 985-1040)의 연구 덕분이었다. 그는 이 전접어 멤을 가리켜서 “이 멤은 제외시킨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히브리어 멤이 형태론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 기능이나 의미 없이 한 단어에 붙어

서 사용된 경우들을 발견한 것이다.<sup>1)</sup> 히브리어의 전접어 맴에 대한 현대적 연구는 1936년 긴스버그(H. L. Ginsberg)가 시 29편 6절에 전접어 맴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sup>2)</sup> 그에 이어서 허멜(H. D. Hummel)이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전접어 맴의 여러 예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기에 이르렀다.<sup>3)</sup>

사실 최근까지도 일부 학자들은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전접어 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 에머튼(J. A. Emerton)은 허멜이 제시한 전접어 맴의 용례들에 대해 전접어 맴이 아닌 다른 해석의 가능성들을 제기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다른 셈족 언어에서도 전접어 맴이 분명하게 발견됨에 따라, 이제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도 전접어 맴이 존재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게 되었다.<sup>5)</sup> 예를 들어 우가릿어에서 형태소 *m*은 동사, 부정사, 명사 등 문장의 여러 다양한 요소들에 자유롭게 붙어 사용된다. 분명하진 않지만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그 주된 기능으로 여겨진다.<sup>6)</sup>

또한 아카드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전접어 *-ma*(마)는 문장에서 동사 이외의 요소에 붙어서 그 단어의 의미를 강조해 준다. 예를 들어 *šarrum māri ina kakkīšu imḥaš* ‘왕이 내 아들을 그의 무기로 쳤다’에서 *šarrum*(왕)에 전접어 *-ma*가 붙으면, *šarrum-ma māri ina kakkīšu imḥaš* ‘내 아들을 무기로 친 자는 바로 그 왕이다’가 된다.<sup>7)</sup> 그 이외에

- 
- 1) Ch. Cohen, “The Enclitic *mem* in Biblical Hebrew: Its Existence and Initial Discovery,” Ch. Cohen(들)(ed.), *Sefer Moshe: the Moshe Weinfeld Jubilee Volume: Studies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Qumran, and post Biblical Judaism*,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4), 234-235쪽.
  - 2) H. L. Ginsberg, *תִּירְגֹּא יִבְחַח*, (Jerusalem: Bialik, 1936), 130쪽 [Hebrew]; idem., “A Phoenician Hymn in the Psalter,” *Atti del XIX Congresso Internazionale degli Orientalisti*, (Rome: Senato, 1938), 474쪽.
  - 3) H. D. Hummel, “Enclitic *Mem* in Early Northwest Semitic, with Special Reference to Hebrew” (Ph. D. dis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5); idem., “Enclitic *Mem* in Early Northwest Semitic, Especially Hebrew,” *JBL* 76 (1957), 85-107쪽.
  - 4) J. A. Emerton, “Are There Examples of Enclitic *mem* in the Hebrew Bible?” M. V. Fox(들)(ed.),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6), 321-338쪽.
  - 5)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가릿어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 상열,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의 관계: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28집(2008년 6월), 129-133쪽.
  - 6) D. Sivan, *A Grammar of the Ugaritic Language*, (Leiden: Brill, 1997), 192-194쪽.
  - 7) J. Huehnergard, *A Grammar of Akkadian* (Harvard Semitic Studies 45), (Atlanta: Scholars

남부 아랍어(South Arabic)와 고전 에티오피아어(classical Ethiopic)에도 이와 비슷한 전접어 멤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sup>

### 3. 연구방법

위와 같이 여러 셈족 언어들에서 전접어 멤은 주로 강조를 위하여 특정 단어 뒤에 붙어서 사용되곤 했으므로,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도 전접어 멤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최근까지도 전접어 멤의 존재 여부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전접어 멤이 다른 형태소들, 예를 들어 남성 복수 접미사 ׀(임), 대명접미사 ׀(암), 또는 전치사 ׀(민)과 같은 요소들과 쉽게 혼동되어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sup>9)</sup> 특히 비교적 후대의 문헌으로 갈수록 이렇게 본래의 전접어 멤이 다른 형태소로 바뀌어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본 연구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시가들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전접어 멤의 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시가들을 연구의 범위로 잡은 이유는 이 시가들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들이니 만큼 다른 후대의 문헌들보다 전접어 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그 나타나는 빈도수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해하는 히브리어 고대 시가들은 주전 10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들로, 이러한 시가들에는 창 49장, 출 15장, 민 23-24장, 신 33장, 사 5장, 삼하 22장(=시 18편), 합 3장, 시 29편, 68편 등이 해당된다.<sup>10)</sup>

필자는 이와 같은 히브리어 고대 시가들에서 필자가 보기에 전접어 멤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는 구절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접어 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들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절에서 전접어 멤이 수행하는 기능을 다른 셈족 언어의 전접어 기능에 비추어서

Press, 1997), 325쪽.

8) Hummel, "Enclitic Mem in Early Northwest Semitic, Especially Hebrew," 87쪽.

9) B. K. Waltke/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158-160쪽.

10)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성경 구절들 이외에도 히브리어 고대 시가들 중에서 다음의 경우들도 전접어 멤으로 종종 분류되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되었다. 사 5: 10, 11; 합 3: 8; 시 68: 23은 본문 비평 상 본문 보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지나치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창 49: 19, 20; 민 24: 17; 시 68: 24은 마소라 본문의 읽기가 더 옳거나 다른 읽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접어 멤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다.

알아보고자 한다.

#### 4. 고대 시가들에 나타난 전접어 뎀

##### 1) 출 15장 9절<sup>11)</sup>

אָרְדָּה אֲשִׁיג	אָמַר אוֹיֵב
תִּמְלֵאֵם נַפְשִׁי	אֶחְלַק שְׁלָל
וְתוֹרִישֵׁם יָדִי	אֶרִיֵּץ חֲרָבִי

마소라 본문(MT)은 **תִּמְלֵאֵם**(티플라에모/...이 그것들을 채우리라)와 **וְתוֹרִישֵׁם**(토리쉐모/...이 그것들을 멸하리라)에서 **מ**를 복수 대명사 접미어로 이해하고 있지만, 크로스과 프리드만(F. M. Cross/D. N. Freedman)은 공동으로 집필한 존스홉킨스 박사 학위 논문에서 그들의 스승 올브라이트(W. F. Albright)의 견해를 따라 이를 전접어 뎀으로 보고 있다.<sup>12)</sup> 그리고 그들은 이 문장들을 **נַפְשִׁי תִּמְלֵאֵם**(my greed will be sated), **יָדִי תוֹרִישֵׁם**(my hand will conquer)로 번역한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같은 9절의 두 동사 **אָרְדָּה**(에르도프/내가 추격하리라)와 **אֲשִׁיג**(아씨그/내가 따라잡으리라)에도 대명사 접미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칠십인경의 번역(ἐμπλήσω)도 본래 **מלא** 동사에 대명사 접미어가 없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칠십인경은 **יָרַשׁ** 동사에도 대명사 접미어를 읽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출 15장 9절의 두 동사 **תִּמְלֵאֵם**와 **תוֹרִישֵׁם**에 있는 **ם**는 본래 전접어 뎀이었던 것인데,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 대명사 접미어로 잘못 이해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출 15장 9절의 음절수를 세어보면 8 : 10 : 9가 된다.<sup>13)</sup> 만일 전접어

11) 이 논문에 포함된 히브리어 구절들은 철기시대 히브리어 철자법대로 재구성한 것이 아닌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따른 것임을 밝혀 둔다.  
 12) F. M. Cross/D. N. Freedman, *Studies in Ancient Yahwistic Poetry*,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 1975), 42-43쪽.  
 13) 히브리어 고대시가의 음절수를 세는 원칙은 프리드만(Freedman)의 제안을 따른다: "We have followed MT generally, except where we have convincing evidence for a different vocalization going back behind the Messoretic tradition. Thus we treat segolate formations as originally monosyllabic; we omit secondary vowels (usually *hatafs* associated with laryngeals, and including *patah furtive*)." (마소라 전승 배후에 다른 모음 읽

멤이 없었다면 같은 절의 음절수는 8 : 9 : 8이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접어 멤이 없었을 때보다 전접어 멤이 붙었다고 해서 이 구절의 운율이 더 나아진 것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러므로 전접어 멤이 적어도 이 구절에서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구절에서 1인칭 동사에는 전접어 멤이 사용되지 않고, 3인칭에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필자가 아는 한, 구약성경에서 전접어 멤이 1인칭 동사에 붙은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sup>14)</sup> 출 15장 9절에 있는 전접어 멤이 붙은 두 동사들은 같은 절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1인칭 동사들이 묘사하는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출 15장 9절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대적이 말했다. “나는 추격하여 취할 것이다.  
 나는 노략물을 나눌 것이다. (그 결과로)나의 욕구가 충족될 것이다(תמלא־אֶם).  
 나는 나의 검을 꺼낼 것이다. (그 결과로)나의 팔은 승리할 것이다(תוריש־אֶם).”

출 15장 9절 전체의 강조점이 바로 전접어 멤이 붙은 두 단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전접어 멤은 문장의 핵심 서술어에 붙어서 그 내용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 2) 민 24장 17b, 19절

17절b	וְקָם שִׁבְטֵי מִיִּשְׂרָאֵל	וְרָדוּ וְכִכְּבוּ מִצְעָקָב
19절	וְהֶאֱבִיר שְׂרִיר מְעִיר	וְרָדוּ מִצְעָקָב

기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마소라 본문을 따른다. 그러므로 세골 명사의 경우는 본래 단음절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후음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하텡 모음들, 그리고 파타흐 퍼티브 같은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로 보아 세지 않는다. D. N. Freedman, *Pottery, Poetry, and Prophecy: Studies in Early Hebrew Poetry*,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80), 53쪽.

14) 이는 필자가 허멜(Hummel), 스투어트(Stuart), 에머튼(Emerton), 코헨(Cohen), 로버트슨(Robertson)이 제시한 전접어 멤의 가능성이 있는 예들을 모두 조사한 결과이다.

올브라이트는 민 24장 17절에 있는 두 뱀을 모두 전치사가 아닌 전접어로 보았다.<sup>15)</sup>

וְכָבֵב מִיִּצְקָה  
וְשֶׁבֶט מִיִּשְׂרָאֵל

이 전접어 뱀은 연계 상태에 있는 명사들 사이에 끼어 들어 사용되는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예는 우가리트어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nm 'umy “내 어머니의 아들(들)”(KTU 1.6 VI 11, 15)의 경우에 뱀은 분명히 연계 상태에 있는 단어들 사이에 사용된 전접어이다.<sup>16)</sup> 이러한 전접어 뱀은 우가리트어 이외에도 우가리트에서 사용되던 아카드어, 그리고 아마르나 서신들에서도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내에서도 וְכָבֵב מִיִּצְקָה(엘로힘 츠바오트/만군의 하나님; 시 59: 6), 그리고 아래에서 논의되고 있는 וְכָבֵב מִיִּצְקָה(모트나임 카마우/그의 적들의 허리들; 신 33: 11)의 뱀도 분명 연계 상태에 있는 두 단어를 분리시키고 있다.<sup>17)</sup> 그렇지만 17절의 두 문장의 뱀들을 올브라이트의 주장대로 전접어 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마소라 본문대로 그냥 전치사 מ으로 볼 것인지는 결정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분명한 것은 민 24장 15-24절의 발람의 노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는 17절의 כָּבֵב(코바브/별)과 שֶׁבֶט(세베트/죽속)로 이 단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17절의 뱀은 전치사보다는 이 단어들을 강조하기 위한 전접어 뱀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편 민 24장 19절에서 올브라이트는 וְכָבֵב의 뱀을 동사 וְכָבַב에 붙여야 할 전접어로 이해한다.<sup>18)</sup> 그리고 그는 이 구절의 운율을 고려하여 민 24장 18절의 וְכָבֵב(오여바우/그의 대적들)를 וְכָבַב(아아코브/야곱)

15) W. F. Albright, “The Oracles of Balaam,” *JBL* 63 (1944), 219쪽.

16) Sivan, *Ugaritic Language*, 193쪽에 더 많은 예들이 수록되어 있다. 우가리트의 전접어 뱀의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는 W. G. E. Watson, “Final -m in Ugaritic,” *Aula Orientalis* 10 (1992), 249-251을 보라.

17) Sivan은 이 외에도 겔 22: 18, 삿 5: 13의 예를 더 들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이 구절들의 뱀은 다른 읽기의 가능성이 더 높다. Sivan, *읽글*, 193쪽.

18) Albright, “Balaam,” 221쪽.

의 뒤로 옮겨서 **יְעַקֵּב אִיבּוֹ**로 읽었다. 분명 **אִיבּוֹ**는 현재 마소라 본문의 위치인 18절보다 올브라이트가 재구성한대로 민 24장 19절에 위치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또한 그 결과로 18-19절의 운율이 마소라 본문에서는 3 : 4 : 3/2 : 3으로 불규칙적이던 것이 재구성한 결과 3 : 3 : 3/3 : 3으로 규칙적으로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장의 뱀을 올브라이트의 주장대로 전접어 뱀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이다. 올브라이트는 이 문장을 “야곱이 그의 적들을 다스릴 것이다”로 번역하였다. 올브라이트의 견해 이외의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뱀을 전접어가 아닌 복수 대명사 접미어로 보고, “야곱이 그들, 곧 그의 적들을 굴복시킬 것이다”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사의 목적어로 대명사 접미어가 나온 직후에 이를 해설하는 명사가 뒤이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문장의 뱀을 마소라 본문처럼 전치사로 이해되 “...으로부터”의 의미가 아닌 “...의 일부, ...중의 하나”의 의미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야곱 중의 하나가 그의 적들을 굴복시킬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전치사 뱀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될 경우 전치사 뒤의 명사는 복수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해석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민 24장 19절의 경우 올브라이트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자의 눈에는 마소라 본문 19절의 **בַּמִּצְעָק**에서 뱀은 본래 전접어였지만, 민 24장 17절의 **בַּמִּצְעָק**의 영향을 받아 전치사로 이해된 결과로 보인다.

### 3) 신 33장 2-3절

신 33장 2-3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각각 하나의 3행 연구(聯句)와 세 개의 2행 연구로 구성된 두 연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sup>19)</sup>

제 1연(3행 연구[聯句])

הוֹפִיעַ מִהַר פָּאֵר  
וְזָרַח מִשְׁעִיר לָבַן  
הָהוּא מִסִּינַי בָּא

19) 2-3절의 히브리어 문구는 철기시대 히브리어를 재구성한 것이 아닌 마소라 본문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제 2연(세 개의 2행 연구들)

וְאַתָּה מְרַבֵּת קֹדֶשׁ מִיְמֵינִי אֲשֶׁרֶת לָמֹ  
אֶף חֲבָב עַמִּים כָּל־קֹדְשֵׁי בְּיָדְךָ  
וְהֵם תּוֹכֵחַ לְרֹגְלֶךָ יֵשׂא מְדַבְּרֵיךָ

제 2연 첫 문장인 마소라 본문의 **וְאַתָּה מְרַבֵּת קֹדֶשׁ**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신 33장 2-3절의 핵심이다. 우선 **וְאַתָּה**를 동사(아타/오다)로 보고, **קֹדֶשׁ**를 지명으로 보아서 “그는 리베보트 코데쉬에서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문장은 제 1연의 세 문장들과 내용상 잘 이어진다. 하지만 ‘리베보트 코데쉬’라는 지명은 아직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וְאַתָּה מְרַבֵּת קֹדֶשׁ**를 “수많은 거룩한 자들,” 즉 일종의 천사들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וְאַתָּה**를 전치사 **אֵת**(에트/...와 함께)에 삼인칭 남성 대명사 접미어가 붙은 형태, 즉 **אתָּה**(‘ittô)로 볼 수 있다.<sup>20)</sup> 이렇게 분석하면 전체 문장을 “그와 함께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21)</sup> 또한 칠십 인경, 불가타역, 타르굼 모두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이 분석이 옳다면, 이 문장에 있는 **מֵם**은 분명히 전접어 **מֵם**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장은 내용상 제 2연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

제 2연 마지막 문장인 마소라 본문의 **יֵשׂא מְדַבְּרֵיךָ**에 있는 **מֵם**은 역시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한데, 그 하나는 전치사 **מֵ**이 “...의 일부”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이 문장은 “그들은 당신의 말의 일부를 행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의 일부”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를 전치사 **מֵ**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מֵם**을 전접어로 보아서 이 문장을 **יֵשׂא מְדַבְּרֵיךָ מֵ** “그들은 당신의 말을 행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sup>22)</sup>

20)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철기시대 히브리어 철자법에서는 **ח**(헤)가 장모음 -오(-ô)를 나타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שלמה**로 표기되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된다.

21) Cross/Freedman, *Yahwistic Poetry*, 72쪽.

22) T. H. Gaster, “An Ancient Eulogy on Israel: Deuteronomy 33: 3 5, 26 29,” *JBL* 66

위에 분석해 놓은 신 33장 2-3절의 구조에서 제 1연은 야훼 하나님과 남쪽 지역으로부터 오신다고 말하고 있다. 제 2연은 야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 천사급 존재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지를 묘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두 개의 전접어 맴들이 각각 제 2연의 제일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우가릿에서 사용되던 아카드어에서는 전접어 -ma가 한 문장에 붙어서 그 문장을 의미상으로 그 전 후 문맥에서 구별해 주는 기능을 했다. 또한 한 단락의 마지막에 붙어서 지금까지 말한 주제가 끝나고 이 다음에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sup>23)</sup> 그러므로 우가릿의 아카드어에서처럼 신 33장 2-3절의 제 2연의 시작과 끝 문장에 사용된 전접어 맴은 이 문단이 이전, 이후의 문맥과 의미상으로 구별되는 부분임을 지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 4) 신 33장 11절

בְּרוּךְ הַתְּהוֹה חֵילוֹ וּפְעֵל יְדָיו תִּרְצָה  
מִחַיֵּן מִתְּנִים קָמְיוֹ וּמִשְׁנֵאָיו מִיְקוֹמוֹ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신 33장 11절 하반절의 **קָמְיוֹ מִתְּנִים**에 있는 맴을 연계상태에 있는 두 명사 사이에 사용된 전접어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에머튼은 시 3편 8절을 예로 들면서 **קָמְיוֹ**(카마우/그의 적들)를 동사의 직접목적어로, 그리고 **מִתְּנִים**(모트나임/허리)을 직접목적어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두 번째 목적어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4)</sup> 그러므로 **מִתְּנִים**의 맴은 전접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코헨(Cohen)이 이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반박하듯이, 이 경우라면 **קָמְיוֹ**가 **מִתְּנִים**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sup>25)</sup> 사마리아 오경에도 맴이 없

(1947), 58쪽; Cross/Freedman, *Yahwistic Poetry*, 74쪽.

23) J. Huehnergard, *The Akkadian of Ugarit* (Harvard Semitic Monographs),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89), 205쪽.

24) Emerton, "Examples," 327쪽.

25) Cohen, "Enclitic mem," 243-244쪽.

다는 사실은 11절의 뱀을 전접어로 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계 상태의 두 명사 사이에 전접어 뱀이 사용되는 예는 다른 셈족 언어에서도 종종 발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전접어 뱀이 없이 **מים**이 연계형으로 사용되었다면, 11절의 음절수는 6 + 6 : 6 + 7일 것이다. 그러나 전접어 뱀이 사용되면서, 음절수는 6 + 6 : 7 + 7이 되어, 보다 더 규칙적인 운율을 가지게 되었다.<sup>26)</sup> 그렇다면 전접어 뱀은 주제의 전환이나 강조의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 한 음절을 추가함으로써 운율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5) 시 18편 16절

וַיָּגִלוּ מִסֵּד תַּתְּבַל מִנְשֵׁמַת רִיחַ אֶפְקֵי	וַיֵּרְאוּ אֶפְקֵי מַיִם מִנְעֻרְתֵּי יְהוָה
---------------------------------------------------------	-------------------------------------------------

상반절 **מים** (아피케 마임/물의 근원)에서 **מים**의 첫 번째 뱀은 전접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 18편 16절의 병행 구절인 삼하 22장 16절에서 같은 어구가 **ים** (아피케 얄/바다의 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내용상으로도 같은 절의 병행 어구인 **מִסֵּד תַּתְּבַל** (모스도트 테벨/세상의 기초)과 조화를 더 잘 이루는 것은 단순히 **מים** “물의 근원”이라기보다는 **ים** “바다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ים** **אֶפְקֵי**으로 읽는 것이 더 옳다. 이것은 본래 전접어 뱀이었던 것이 후에 명사 **מים**의 일부분으로 잘못 이해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코헨은 시 18편 16절의 전접어 뱀을 “같은 성경 구절이 반복될 때 변화를 주기 위해 사용된” 경우라고 제시

26) **מִן־יִקְוִמִין**에 대해서는 스투어트의 재구성(*man yaqūm* “whoever shall arise”)이 크로스/프리드만의 재구성(*man yʿqimennū* “whoever attacks him”)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크로스/프리드만이 제안한 히필 동사는 “공격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어나 대적하다”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스투어트가 제안한 칼 동사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음절수를 계산할 때도 스투어트의 재구성을 따랐다. D. K. Stuart, *Studies in Early Hebrew Meter*, (Missoula, Montana: Scholars Press, 1976), 156쪽.

27) Cross/Freedman, *Yahwistic Poetry*, 100쪽.

하고 있다.<sup>28)</sup>

6) 시 29편 6절

וַיִּרְקְדוּ כַּמּוֹעַל לִבְנוֹ וְשָׂרֵי קָמָּ כִּי רָאִמִּים

וַיִּרְקְדוּ(와야르키템/그가 그들을 뛰게 하다)의 멤은 흔히 동사의 끝에 붙은 전형적인 전접어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에머튼은 이 멤을 전접어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미리 가리키는 대명사 접미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9)</sup> 그러나 לִבְנוֹ(레바논/레바논)을 받는 목적격 대명사 접미어가 오려면 본문에서처럼 복수 접미사가 아닌 단수 접미사가 와야 할 것이다.

시 29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1-2절은 도입부, 그리고 본문은 3-6절과 7-11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문의 첫 문단은 6절을 제외하고 3-5절이 모두 규칙적으로 קוֹל יְהוָה(콜 아도나이/주님의 목소리)로 시작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문단에서도 7-9절이 역시 לַיהוָה로 시작되고 있다. 6절은 첫 문단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문단과 내용상의 구분을 지어주고 있다. 이러한 6절의 וַיִּרְקְדוּ에 사용된 전접어 멤은 다른 일부 셈족 언어에서처럼 동사의 의미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 주제의 흐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제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의 6절의 음절수를 세어보면 전접어 멤을 포함하면 9 : 9로 균형이 잘 맞는다. 그렇다고 해서 전접어 멤이 운율을 고려해서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 29편 전체의 운율이 매우 규칙적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7) 시 68편 29-30절

צוּחַ אֱלֹהֵיךָ עָזָר עֲוֹזָה אֱלֹהִים זֶז פָּעֻלָּתָ לְנוֹ  
מִהִיכָלְךָ עַל־יְרוּשָׁלַיִם לֵךְ י בִּילּוֹ מְלָכִים שִׁי

28) 계속되는 예는 Cohen, "The Enclitic mem," 260쪽을 보라.  
29) Emerton, "Examples," 325-326쪽.

30절의 מְהִיכָלְךָ (메헤칼레카/당신의 신전으로부터)에서 뱀을 전치사로 보면 왕들이 조공을 “당신의 신전으로부터” 가져온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왕들이 조공을 가져온다면 “신전으로” 가져와야지 “신전으로부터” 가져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뱀을 전치사가 아닌 29절의 לָנוּ (라누/우리를 위해)에 붙어야 할 전접어로 보기도 한다.<sup>30)</sup>

이와 비슷하게 לָנוּ에 전접어 뱀이 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경우가 시 137편 3절에 나타난다. וְשִׁירָנוּ לָנוּ מִשִּׁיר צִיּוֹן에서 뱀을 전치사로 보면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중 하나를 불러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וְשִׁיר צִיּוֹן (쉬르 치온/시온의 노래)이 아닌 וְשִׁירֵי צִיּוֹן (쉬레 치온/시온의 노래들)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히려 뱀을 לָנוּ에 붙은 전접어로 보아서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sup>31)</sup>

## 5.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구약성경 고대 히브리어 시기에 나타난 전접어 뱀의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았다. 최근까지만 해도 히브리어에서 전접어 뱀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것조차 수월하지 않았던 만큼, 그 기능도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셈족 언어에서 전접어 뱀이 가졌던 기능에 비추어서 관찰했을 때, 히브리어에서도 전접어 뱀이 한 단어에 붙어서 그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 그리고 때로는 한 문장에서 다른 문장으로 넘어가면서 화제의 전환을 예고하는 기능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히브리어 시가에서 전접어 뱀이 시의 운율을 보다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는가의 여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전접어 뱀이 어떻게 발음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자음 뒤에서는 -ma 아니면 -mi로 발음되어 독립된 음절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30) M. Dahood, *Psalms 51-100* (Anchor Bible 17), (New York: Doubleday, 1968), 149쪽.

31) 시온의 노래, 또는 시편의 시온 신학에 대해서는 왕 대일, “시편의 신학: 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32집(2009년 6월), 17-20쪽.

그런데 문제는 모음 뒤에서이다. 예를 들어 לָנֹּמִי에 전접어 멤이 붙을 경우 lānû-mi 또는 lānû-ma로 발음되었는지, 아니면 lānû-m으로 발음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전자의 경우들에서는 전접어 자체가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의 운율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음절수에 변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의 운율에 끼치는 영향이 사실상 거의 없게 된다. 필자는 본고에서 히브리어에서도 다른 셈족 언어에서처럼 전접어가 자음 뒤에서이든 모음 뒤에서이든 항상 독립된 음절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또한 히브리어 시가를 기록한 시인들이 음절수를 규칙적으로 맞추는 데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구약성경의 여러 히브리어 시가들에서 전치사에 전접어 멤이 붙은 형태인 לָנֹמִי, לָנֹמִי, 그리고 לָנֹמִי가 사용되는 빈도수가 높다는 사실은 전접어 멤이 운율을 맞추는 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일부 셈족 언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도 전접어 멤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철기 시대 히브리어에서 종종 사용되던 전접어 멤이 후대의 서기관들에 의하여 대부분의 경우 남성 복수 접미사 מִי(임), 대명접미사 מִי(암), 또는 전치사 מִ(민)으로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더 많은 전접어 멤이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여러 이유로 그 범위를 구약성경 고대 히브리어 시가들로 한정했지만, 앞으로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나타나는 전접어 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히브리어에서 전접어 멤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 더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란다.

## 6. 참고문헌

- 왕 대일, “시편의 신학: 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32집(2009년 6월), 10-29쪽.  
 조 상열, “우가릿 문헌과 구약성서의 관계: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28집(2008년 6월), 128-141쪽.  
 Albright, W. F., “The Oracles of Balaam,” *JBL* 63 (1944), 207-233쪽.  
 Cohen, Ch., “The Enclitic: Its Existence and Discovery,” ... ..  
 Cohen Ch. 들(ed.), *Sefer Moshe: the Moshe Weinfeld Jubilee Volume: Studies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Qumran, and post Biblical Judaism*,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4), 231-260쪽.

- Cross, F. M./D. N. Freedman, *Studies in Ancient Yahwistic Poetry*,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 1975).
- Emerton, John A., "Are There Examples of Enclitic mem in the Hebrew Bible?" M. V. Fox 들(ed.),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6), 321-338쪽.
- Freedman, D. N., *Pottery, Poetry, and Prophecy: Studies in Early Hebrew Poetry*,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80).
- Gaster, T. H., "An Ancient Eulogy on Israel: Deuteronomy 33:3 5, 26 29," *JBL* 66 (1947), 53-62쪽.
- Huehnergard, John, *The Akkadian of Ugarit*,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89).
- \_\_\_\_\_, *A Grammar of Akkadian*,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97).
- Hummel, H. D., "Enclitic Mem in Early Northwest Semitic, with Special Reference to Hebrew," (Ph. D. dis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5).
- \_\_\_\_\_, "Enclitic Mem in Early Northwest Semitic, Especially Hebrew," *JBL* 76 (1957), 85-107쪽.
- Pope, M., "Ugaritic Enclitic -m,"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5 (1951), 123-128쪽.
- Robertson, D. A., *Linguistic Evidence in Dating Early Hebrew Poetry*, (Missoula, Montana: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72).
- Sivan, D., *A Grammar of the Ugaritic Language*, (Leiden: Brill, 1997).
- Stuart, D. K., *Studies in Early Hebrew Meter*, (Harvard Semitic Monograph 13), (Missoula, Montana: Scholars Press, 1976).
- Waltke, B. K./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 Watson, W. G. E., "Final -m in Ugaritic," *Aula Orientalis* 10 (1992), 223-252쪽.
- \_\_\_\_\_, "Final -m in Ugaritic Again," *Aula Orientalis* 12 (1994), 95-103쪽.
- \_\_\_\_\_, "Final -m in Ugaritic Yet Again," *Aula Orientalis* 14 (1996), 259-268쪽.

#### 검색어

고대 히브리어 시가 • 전접어 멤 • 우가릿어  
아카드어 • 연계형(구문형)

투고일: 2009년 8월 1일  
심사일: 2009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11일

---

## Enclitic Mem in Archaic Biblical Poetry

---

**Seung-II Kang**

Lecturer at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Johns Hopkins University Ph. D.

The enclitic mem is well attested in some Semitic languages such as Ugaritic, Akkadian, Ugaritic Akkadian, and classical Ethiopic. Its existence in biblical Hebrew, however, has not been recognized until fairly recently because it became confused by the Masoretes with other morphemes with mem, e.g. the masculine plural suffix ם, the pronominal suffix ם, and the preposition ם.

This essay seeks to identify some cases of enclitic mems in archaic biblical poetry. It is, therefore, by no means a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enclitic mem throughout the Bible. The reason why this specific group of texts is chosen is because these poems are one of the oldest texts in the Old Testament, and thus, they usually preserve some archaic features of the Iron Age Hebrew.

This study shows that the enclitic mem did indeed exist in biblical Hebrew and may have functioned as a focusing morpheme to emphasize or to bring attention to the word to which it is attached. Meanwhile,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its metrical function on account of the fact tha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enclitic mem could always account for one syllable by itself. However, in light of the prevalence in biblical poetry of ם, ם, and ם, the prepositional forms with the enclitic



mem, the Hebrew poets in all probability took into account of metrical factors when using the enclitic mem in their literary works.

I hope this essay will set the stage for further in-depth analyses of the enclitic particle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hat would bring to light such a hitherto little known feature of biblical Hebrew as the enclitic mem. Further studies would also investigate a possibility that the enclitic particle could be used in poetry in place of other emphatic devices in Hebrew such as the infinitive absolute or inversion of the word order.

#### **Keywords**

Akkadian  
Archaic biblical poetry  
Construct state  
Enclitic mem  
Ugaritic